

太康十一年銘

通度寺拜禮石考

張忠植

I、前言

古代 문화유산의 수호는 原狀 그대로의 保存이 最善策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原狀에 대한 人爲的 손질로 인하여 고대 미술품의 變形과 그 해명에 혼란을 가져오는 예를 가끔 본다.

이와같은 전형적인 한 예가 慶南梁山通度寺 소장의 高麗時代 石造拜禮石에서 指目할 수 있다. 특히 이 拜禮石에는 造成年記가 陰刻되어 있었으나 그 年記는 언제부터인가 僞刻이 첨부되어 이에 대한 해명①이 마련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근래 이 拜禮石에 나타난 圖像의 문양까지도 별개의 문양을 새겨넣은 板石이 첨부되었음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대체로 지금까지 발견된 拜禮石은 대부분 銘文이 없고 직사각형의 板石으로서 측면에는 眼象을 새기고 뒷 면에는 蓮花紋 등의 단조로운 문양을 浮肉彫로 나타내는 것이 고작이다. 이에 비하여 通度寺의 拜禮石은 圖像의 성격을 지닌 풍부한 문양과 銘文을 지니고 있어 일찍부터 주목되기도 했다. 특히 僞刻된 字劃과 함께 國王 拜禮之石이라는 象徴的 用言에 더욱 충실하려는 後人의 의도적 發想으로 인하여 이 石彫 造形의 해명에 혼란을 가져왔음이 사실이다.

필자는 근래 梁山郡誌를 위시하여 몇몇 關係文獻②을 열람하다가 그 같은 銘文判讀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세 개의 板石으로 이룩된 拜禮石 자체에도 중간 어느 때인가 교묘하게 하나의 別石을 補充하여 原狀을 변형시켰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예사로 보아서는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造作되었으나 別石 자체의 圖像의 양식을 비교 검토한 결과 그것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別石에 관계되었던 文獻상의 기록을 인용하여 이의 올바른 판독과 함께 문양을 비교 검토하여 別石이 보충되기 이전의 原狀復元に 치중하였다. 이에 先行하여 通度寺의 건립 배경과 現存 石造物 그리고 別石의 일반적 성격까지도 並行하여 검토하였다.

아직까지 우리들은 別石에 대하여 그 用途라든지 또는 編年에 있어서도 보다 명확한 해명을 갖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別石의 용도에 대하여는 그 성격의 해명에서 시도될 것이며 아울러 통도사 別石의 絶對年代는 앞으로 이들 別石의 연대 해명에 한 기준이 되리라 생각된다. 동시에 우리들은 이같은 조사를 통하여 年記가 보다 확실하고 또 정확한 본래의 문양을 지닌 하나의 別石을 갖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別石에 대한 성격의 해명과 함께 그 原狀 회복의 好機를 마련하기 위한 復元の 考察에 있다 하겠다.

II、通度寺의 建立背景과 石造物

대체로 寺刹의 건립에 대하여는 起工으로부터 完工에 이르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인지 정확한 연대 설정을 제시하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사실 통도사의 창건 역시 문헌 기록상으로는 명확한 연대를 꼬집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것은 통도사의 역사를 말해주는 『三國遺事』 『通度寺事蹟』 또는 기타 金石文의 기록들에 있어서도 그 창건 연대에 대

한 절대치를 알게하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이들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그 創寺年代가 신라 善德王一五年(서기 六四六년)에 머물게 된다. 다시 말하면 貞觀一七年(六四三) 善德女王的 칭에 의하여 唐으로부터 귀국한 慈藏法師는 佛舍利 등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皇龍寺塔·太和寺塔 그리고 通度寺 戒壇에 두었다는 기록③ 만으로서는 그 귀국을 말하는 것이지 創寺年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겠다. 다만 이같은 의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책은 『娑婆教主戒壇源流綱要錄』④으로서 慈藏이 皇龍寺塔을 初創한 것이 善德王一四年(六四五)이라는 삼국유사의 기록(皇龍寺九層塔條을 지적하고, 아울러 그 다음해에 바로 통도사가 창건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옛 문헌에서 모두 통도사의 창건을 신덕왕대라 하고 있으므로 皇龍寺九層塔 건립(六四五年乙巳) 이후 丙午歲(六四六)는 곧 신덕왕의 末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들어 이같이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합리적인 것으로서 거의 모든 기록이 이 六四六년 說을 한결같이 따르고 있다. 물론 現存 石造物을 이 시기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通說대로 통도사 건립의 上限을 이 시기에 놓고서 石造物의 해명을 시도하기로 하겠다.

절이 위치하는 곳은 國都 慶州로부 약 一〇〇여리 남쪽, 靈鷲山(당시는 鷲栖山이라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로써 이곳에 戒壇⑤을 쌓아 신라불교의 戒律根本道場으로 삼기도 했다.

통도사의 現存 伽藍配置는 上·中·下 세 지역으로 구획 되어 있으며, 또 그 내용상으로는 佛舍利가 奉安된 上爐殿(가람의 西端部에 위치하는 法堂群)의 現稱 金剛戒壇이 中心法堂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곳 일대에서는 上代에 속하는 가람의 遺構를 전혀 찾을 수 없어 일단 그 가람배치에 따르는 難解性을 말할 수 없다. ⑥ 그러나 現存하는 石造物을 위치하여 건축 양식에 있어서도 보다 高古한 遺構들은 下爐殿(가람의 東端部 法堂群)에 집중되어 있다. 즉 羅末麗初의 寺中最古 유물들을 위치하여 이곳 靈山殿의 壁畫는 일찍부터 주목되고 있다. ⑦

현재 사찰 소유의 중요한 석조물로서는 金剛戒壇의 石鐘을 위치하여 奉鉢塔(보물 제 四七一호), 靈山殿 앞의 拜禮石과 石塔, 그리고 國長生石標 또는 사자목 上部의 廢塔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 國長生石標에 대하여도 後述하겠지만 그 造成年記가 이곳에서 살피게 되는 拜禮石과 같은 시기에 놓이므로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소위 中爐殿의 龍華殿 앞에 위치하는 奉鉢塔은 그 형태가 鉢盂의 모양을 취하는 것으로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造形이다. 이는 未來佛인 彌勒佛에게 釋迦의 上足弟子 迦葉尊者가 석가모니의 鉢盂를 奉呈한다고 하는 신앙적 산물로써 彌勒佛의 會上이 龍華會上이므로 龍華殿 앞에 造成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靈山殿 앞의 石塔은 梵魚寺塔과 比較할 수 있을 것이며 興德王 前後의 것으로 추정⑧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추정이 정확하다면 이 石塔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石造物들은 그 上限이 고려시대에 놓이는 셈이다. 그것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銘文, 또는 造形에서 그같은 추정을 가능케 한다.

아름은 通度寺에 現存하는 대부분의 石造物은 高麗前期, 그것도 宣宗代를 전후하여 활발히 造成되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앞서 말한 國長生石標와 이곳에서 살피게 되는 拜禮石의 銘文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여기 대하여는 다시 拜禮石의 現狀을 살피는 데서 再論하기로 하겠다.

Ⅲ、拜禮石의 一般的 性格

拜禮石이란 그 말과 같이 禮敬을 위한 종교행사에 사용되는 일종의 板石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배례석은 한결같이 屋外의 露天, 그것도 法堂의 正面이나, 石燈 또는 石塔의 바로 앞에 놓이는 것이 通例이다. 그 형태는 모두 직사각형의 板石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배례석이 法堂과 平衡으로 놓여 있음이 주목된다. 이같은 방향의 문제는 배례석이 禮拜를 위하여 마련된 단순한 石造物이란 通念에 대하여 개운찮은 여론을 남긴다. 왜냐하면 배례석은 그 크기라든지 형태 또는 놓이는 방향

때문에 이미 그 위에 올라가서 예배하기에는 不適하다는 스스로의 모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배례석이 그 돌 위에 직접 올라가서 禮敬할 목적으로 造成된 것이라면 그것은 법당 쪽을 향하여 길이로 놓여야만 적합하겠지만 대부분의 배례석은 한결같이 법당과 평형으로 地上보다 높게 놓인다⑨ 그렇다면 여기에 그 방향과 결부하여 배례석의 기능이 단순히 예경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儀式執行과 연관되는 것으로도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찰의 큰 행사에 있어서는 별도로 法席을 屋外에 마련하던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는 儀式에서 사용되는 香爐· 촛대 등의 用具를 놓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같은 儀式的 實例를 볼 수 없는 실정이고 보편이 돌은 여전히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매우 상징적 板石으로 남는다.

아몽든 이와 같은 배례석의 用例에 대하여 이웃 日本의 경우에는 「法隆寺 金堂 및 五重塔의 前面에는 특히 地上에 禮拜의 坐石을 설치하고 이를 禮拜石、御拜石、 혹은 拜石이라 부른다」⑩고 한 내용에서 그 개념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즉 이와 같은 내용으로 봐서는 배례석 자체가 禮拜를 위한 坐石으로써 마련된 것이라는 해석이 될 것이다. 동시에 御拜石이란 用語는 국왕이 그 위에서 절하는 돌, 또는 拜石 자체를 尊崇하는 뜻이 되겠지만 아직 필자로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 해석을 내리기 어렵은 형편이다. 어쩌면 御拜石이란 말 자체로 볼 때는 상당히 관념적 용어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日本의 경우에 있어서는 用語에 따르는 개념 자체에 있어서도 우리와 다소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 있어서는 이 돌을 拜座石⑪이라 기록한 경우도 있어 주목된다.

이와 같은 모든 用語들은 한결같이 배례석의 機能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해석을 주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다. 다만 이제까지의 성격을 종합하면 이곳에서 직접적인 종교의식이 거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 성격이 더욱 농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초기에는 실사 단순한 發想에서부터 출발되었다 하더라도 불교

의 權威의인 관념이 더욱 작용하여 급기야는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御拜石이란 명칭으로까지 飛躍했다고 추정된다. 御拜石과 같은 관념이 국내에서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지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百濟의 경우 王興寺의 부처님께 國王이 望拜하는 돌을 말하고 있어 이 돌이 바로 拜禮石의 성격과도 聯關될 수 있을 것 같아 흥미롭다. 즉

「사자수 언덕에 돌이 하나 있는데 십여 명이 앉을 만하다. 백제왕이 王興寺에 남시어 예배하려면 먼저 이 돌에서 부처님께 望拜하였다. 그러면 그 돌이 절로 더워져 이름을 煖石이라 하였다」⑫

고한 내용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望拜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내용으로써 풀이되어야 할 지 잘 알 수 없는 실정이지만 이는 역시 다분히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아몽든 이 煖石(오늘날 부여읍의 自溫臺를 지칭한다 한)과 같은 상징적 觀念下에서 최소한 拜禮石 또는 拜石、 그리고 御拜石과 같은 매우 抽象的 觀念이 싹텄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百濟王의 故事와 같은 기록에서는 이 煖石 자체가 바로 望拜를 위한 禮拜石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바로 拜禮石의 起源과 결부시켜 설명하기에는 아직 자료의 결핍을 느낀다. 다만 이와 같은 돌석은 現存하는 拜禮石⑬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王興寺 부처님을 향하여 望拜하는 장소의 돌로써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아몽든 이 배례석에 대하여는 그 語源이나 형태에 대하여 發生學的 견지에서 더욱 추구되어야겠지만 일단 이곳에서는 불교의 종교의식 내지 상징적 造形物로 해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배례석이 재래의 관념처럼 그 위에서 바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現存하는 배례석의 형태 또는 문양에 의하여 더욱 분명해진다⑭ 동시에 배례석이란 國王을 위시하여 모든 중생이 그 위에서 예배한다는 사찰이 지닌 상징적 내지 권위적 造形物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IV、通度寺 拜禮石의 變形과 銘文의 僞刻

먼저 배례석의 現狀과 그 형태에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배례석은 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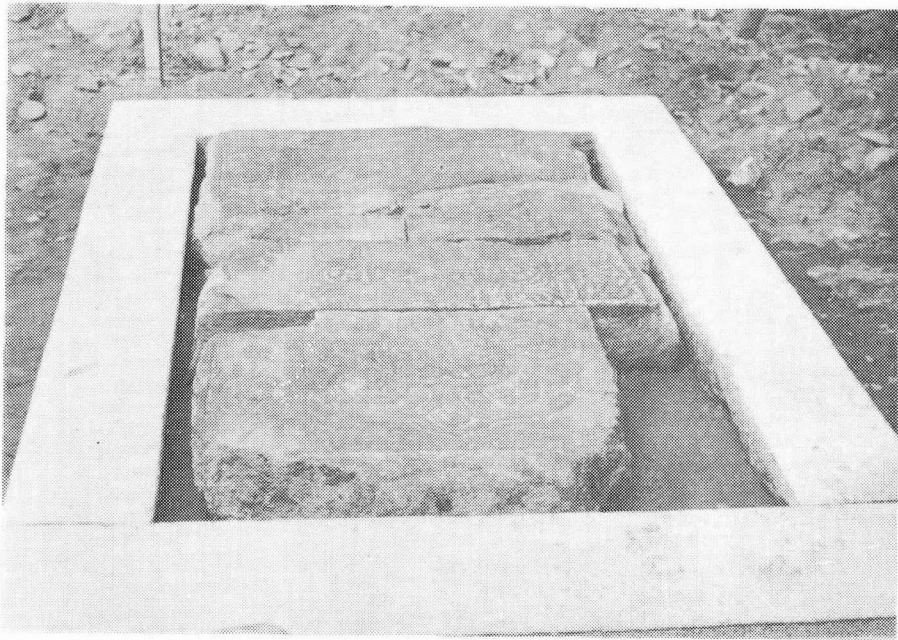


圖 1. 通度寺 拜禮石

向한 極樂殿 앞에 위치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놓여 있고, 그 측면이 향하는 곳은 이곳 下爐殿 일대의 本殿인 靈山殿을 향하였으며 앞서 말한 石塔과 相對되는 곳에 있다. 그 크기는 長一八五cm、幅八七cm의 三切된 板石⑩으로 현재는 대등한 높이의 보호석을 직사각형으로 주위를 돌렸다. (圖1참조).

이들 三石의 크기는 각각 다음과 같다.

구분	크기		비고
	長	幅	
東邊石(第1石)	63	72	北邊缺失
中間石(第2石)	35	87	중앙부에 「王」字 陰刻
西邊石(第3石)	77	87	중앙균열, 造成年記 陰刻

(단위 : cm)

第一石의 북쪽에는 약 十五cm 가량이 결실되었으나 그와 對稱되는 南端의 紋樣에 의하여 그 없어진 부분은 충분히 復元될 수 있다. 서쪽의 第三石은 이들 세 돌 가운데 가장 크지만 風化로 인하여 중간부가 파손되어 있다.

이들 三石 가운데 그 조각 수법을 비교 검토하면 전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第一石과 第三石의 蓮華紋은 그 형태가 훨씬 크고 시원하게 처리된 데 비하여 中間石인 第三石의 蓮華紋은 어딘지 모르게 陝小하고 稠密한 감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제 一석과 제 三석 측면 蓮華紋의 최대폭이 二十cm 인데 비하여 제 二석은 十四cm 에 불과함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제 一石과 三석은 동일 양식임에 비하여 中間石의 造形은 異質感을 면치 못한다. (圖2)

그러므로 이 拜禮石의 原形 추정을 위하여 중간의 제 二석과 左右兩石과의 비교 고찰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먼저 이들 中間石과 左右兩石을 비교 검토하면 앞서 지적한 蓮華紋의 相異性 뿐만 아니라 특히 板石의 外廓에 조각된 문양의 양식에 있어서도 相異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二石의 中間石은 다른 板石에 비하여 전혀 風



圖 3. 通度寺 拜禮石 銘文部分



圖 2. 拜禮石 拓影

화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 돌이 후에 조각되어 左右兩石 사이에 補充되었다는 흠적일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배례석은 처음 造成된 후 어느 때인가 직사각형의 中間板石을 보충하여 확장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圖像에 있어서도 先代の 양식을 模寫하여 조성했거나 작은 공간에서 오는 制約 때문에 그 크기에 있어서 전체적인 調和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배례석의 최종 모습은 중간석이 없는 左右兩石으로써 이들 두 개의 板石을 부쳐서 造成했던 것이 原形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拜禮石의 造成年代를 말해주는 銘文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銘文은 第三石, 그러니까 拜禮石의 西邊一石에 陰刻되어 있으며 字經 四·五cm이다. 제3석도 풍화로 인하여 중간이 단절되어 있으나 다행히 銘文이 있는 쪽은 아무런 손상이 없다. 銘文은 左端 間地에 「太康王一年乙丑 二月日造」(圖3참조)의 十一字를 陰刻했는데 이는 앞서 말한 中間石의 顔化문 중앙에 새긴 「王」字와 연관시키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太康王이란 銘文은 매우 難解하다. 즉 「太康王」이란 者 新羅의 歷王에 없고 康의 字가 있는 것은 34代의 僖康王, 49代의 憲康王, 50代의 定康王의 三王이 있으나 初年으로서 干支 乙丑에 該當하는 것은 없다¹⁶⁾고 언급한 바 있다. 이렇게 高裕燮 先生도 그의 草稿 가운데서 이 「太康王一年乙丑」이란 年記에 대하여 留念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太康王이란 又玄先生이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신라의 歷代王에는 없고 이는 後代에 와서 添刻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와같은 유력한 근거로서 우리들은 梁山郡誌의 내용에 의지할 수 있다. 즉

拜禮石…在通度寺極樂寶殿、國王拜禮之石也、太康十一年乙丑二月日造刻而今則十字毀滅故如太康一年¹⁷⁾(傍點筆者)

라고 기록하고 있어 이 拜禮石은 梁山郡誌가 처음 편찬¹⁸⁾될 때

까지만 하여도 「太康十一年乙丑二月日造」라고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梁山郡誌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같이 銘文이毀滅되어 十字가 분명치 않게되자 이 十字의 上下에 二劃을 첨가함으로써 王字로變劃시켰다고 하겠다. 이로 인하여 그 年記 파악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太康은 遼道宗의 年號로서 그 十一年은 서기 一〇八五年(高麗宣宗二年 즉 大安 元年에 해당)이며 干支 乙丑도 꼭 들어맞는다. 아마 郡誌에서도 기록되고 있는 바와같이 이 배례석은 「國王拜禮之石」이라는 在來의 관념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또 그것은 觀念下에서 十字를 王字로 改造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이같은 사실은 通度寺蹟略錄(前掲 『通度寺誌』所收) 중의 「袈裟稀奇」條의 내용을 인용하여 潤色한 것으로 보이는 후대의 기록에서도 여전히 太康王과 고려 光宗과의 연관점을 말하고 있으나 이 역시 未解決의 章으로 남겨두고 있다. ⑱ 이러한 사실들은 모



圖 4. 復元된 拜禮石의 拓影

두 이 拜禮石과 銘文의 僞刻에 따르는 혼동의 소치이며 그 造成이 宣宗代에 있음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그리고 이 배례석이 造成된 宣宗代는 通度寺의 寺格이나 그 經濟力이 무척 왕성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國王拜禮之石」이라고 傳稱되었던 배례석에서 뿐만 아니라 寺中에서 약 四 km 지점에 있는 國長生石標^⑳에서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宣宗代를 전후하여 왕성한 寺院 經濟力에 의하여 제반 石造物의 完成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 후 어느 때인가 배례석의 中間石이 보충되고 또 銘文에도 添刻되었음이 넉넉히 짐작된다.

V. 圖像의 樣式 및 復元的 考察

다음으로 이 배례석이 지니고 있는 圖像의 양식과 함께 그 原形 추정 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앞서 말한 이 돌 三切의 板石 가운데 中間石(第二石)은 左右兩石과 같은 일정한 幅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딘지 모르게 中間石은 異質感을 느끼게 한다. 즉 風化를 입은 左右板石에 비하여 이는 견고하고 딱딱할 뿐 아니라 타원형의 蓮華紋 조각 역시 兩邊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 대하여는 후에 補充된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中間石을 제외하고 左右石만 가지고 그 양식적으로 참을 시도해 보기로 하겠다.

이들 제 一 제 三 兩石은 蓮華紋의 연잎 중앙에 花紋을 조각했으며 또 귀퉁이까지 平浮하게 나타내고 있다. (圖 4) 그리고 배례석의 중간에는 半圓形으로 연결된 타원 속에 원형의 연꽃 씨방으로 보이는 조각을 나타내어 이가 子房에 相應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 외곽에는 唐草紋의 무늬를 자연스럽게 등장시키고 있다. 이곳에 보이는 蓮華紋의 類型을 따르는 양식으로서는 慶北大 博物館 所藏 昆盧

遮那像②의 下臺石 蓮華紋에서 비교될수 있을 것이다. 이 下臺石은 花紋의 귀꽃을 두드러지게 조각하고 있으나 通도사의 경우는 板石의 배례석이란 점에서 귀꽃을 平浮하게 조각한 점이 다르다 하겠다. 이렇게 蓮華紋 중앙에 花紋과 같은 장식적 手法이 첨가되는 것 역시 시대를 내려 볼수 있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通度寺 拜禮石은 이들 경북 대 佛座臺 등에서 보는 바와같이 九세기의 類型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 말할수 있으나 그 양식으로 봐 훨씬 후기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배례석은 연화문 속의 花紋이 보다 장식적이고 圖式化된 점 등을 比見할 때 앞서 銘文의 내용을 따르는 十一세기 후반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될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 배례석의 復元的 고찰이란 간단히 말해서 圖像의 문양의 비교에서 쉽게 이해될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王」字가 새겨진 中간의 板石은 左右兩石과 그 樣式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크기에 있어서도 최소한 六cm 가량이 작고 稠密하다는 점은 이들의 조화를 위해서도 原形에 대한 복원이 요청된다 하겠다. 먼저 이들의 圖像에 대한 양식상의 두드러진 차별상이 左右兩石은 心形인데 비해 中간석은 타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 左右兩石의 外廓은 唐草紋으로 장식된데 비하여 中間石은 단순히 雲紋으로 처리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異質感을 해소하기 위하여 먼저 문양에 대한 拓本으로써 對校하는 것이 매우 간단한 시도가 될 것이다. 그 방법이란 배례석의 板石全面에 새겨져 있는 문양을 일차적으로 拓本하여 中間石의 부분을 제외하고서 左右兩石의 부분을 맞추어 본다면 금방 이해될수 있다. 즉 제 1석과 제 3석의 연결 문양이 전혀 異質感을 나타내지 않고 그 크기에 있어서도 일치하며 이들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다(圖 4 참조) 즉 心形의 문양이 좌우에서 잘 연결되고 있다.

이같은 간단한 시도는 그 復元이 용이할뿐 아니라 그 양식과 함께 좌우 대칭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調和의 美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하여 復元된 배례석의 크기는 길이 一四二cm, 폭 八七cm로서 全面에 가득한 圖像의 문양이 매우 환상적 品格을 지니고 있다.

VI, 結語

지금까지 우리들은 通度寺 拜禮石에 대하여 고찰해왔다. 寺內에 現存하는 石造物은 배례석을 위시하여 대부분 고려시대의 造形으로서 宣宗代를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이룩되었다. 다만 극락전 앞의 三층석탑은 그 조형 양식상 羅末로 추정되었으나 여기에 대하여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現存하는 通度寺의 중요한 石造遺構들이 고려 宣宗代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寺院經濟와 並行하여 考察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배례석의 機能이란 종교행사나 儀式執典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겠지만 이 역시 사찰이 지니고 있는 宗教的 또는 權威的 象徵物로 해석되어야 하리라 본다. 그것은 배례석의 형태나 방향에 의하여 그 성격을 말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通도사의 배례석은 고려 宣宗 二年에 造成되어 중간에 다시 별개의 板石을 끼움으로써 그 당초의 모습이 變形되었고 또 後人의 조그마한 意圖의 添刻이 그 年記 과악에 수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그것은 결국 배례석의 現狀과 樣式에 따르는 비교 고찰을 시도함으로써 그 原狀을 회복할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제반 石造物이 造成된 宣宗代의 통도사 經濟力 또는 對社會的 機能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곳의 배례석 보다 약 一〇개월 후에 설치되는 國長生을 위시하여 事蹟記에 보이는 十二長生과 연관하여 고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배례석이 造成된지 약 九〇〇여년만에 中간의 迷惑을 헤치고 그간의 제반 사항을 밝힐수 있었음은 꼭 다행으로 생각지 않을수 없다. 끝으로 작은 所望이 있다면 마모되어가는 國王拜禮之石이라고 傳稱되

있던 象徴的 이 紀念物은 永久保存하기 위하여 현 위치에는 原形의 拜禮石을 新造하고 現存 遺物은 木函을 짜서 寺中 博物館에 기리 보전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東國大學校 慶州分校)

註

- ①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P, 一一四 「通度寺拜禮石銘」 참조 (一志社, 一九七六, 四)
- ② 대체로 이 拜禮石에 대하여 언급되고 있는 冊으로는 『梁山郡誌』一卷 및 『朝鮮寺刹史料』上卷,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 各論草稿』黃壽永 前掲書 등이 있다.
- ③ 『三國遺事』卷第四 慈藏定律條 및 同書 卷第三 前後所將舍利條 참조
- ④ 『通度寺誌』P, 九三 (亞細亞文化社, 一九七九, 四) 참조
- ⑤ 이를 通稱 金剛戒壇이라 부르고 있으나 이는 後代의 호칭으로 생각된다. 拙稿 『韓國石造戒壇考』 『佛教美術』제四집 (동국대 박물관, 一九七九) 참조
- ⑥ 한국의 사찰 제四집 『通度寺』伽藍配置 참조, 이곳에서는 現存 중심 건물인 大雄殿 (보물 제 一四四호)은 壬亂時 燒失되었다가 仁祖 一九年 (一六四二) 友雲大師에 의하여 重建되었다고 하였으며 또 築臺를 新羅代의 것으로 기록하였으나 再考되어야 하리라 본다.
- ⑦ 外壁의 供養圖라든지 內壁의 多寶塔圖 등은 매우 주목된다.
- ⑧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 各論草稿』P, 九八. 「梁山通度寺三層石塔」(考古美術資料 제 一四집, 一九六七, 三)
- ⑨ 물론 조선시대 또는 후기에造成된 배례석의 경우 전형적 직사각형이 아니라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小形의 것도 없진 않지만 이는 한갓 변형된 예에 불과하고 그 본래의 형태는 직사각형의 板石으로 法堂과 평형으로 놓이는 것이 常例라 하겠다.
- ⑩ 望月信亨 『佛教辭典』P, 四九四七上
- ⑪ 高裕燮 前掲書 P, 九九
- ⑫ 三國遺事 第二卷 「南扶餘 前百濟 北扶餘」條 「又泗泚崖又有一石。可坐十餘人, 百濟王欲幸王興寺禮佛, 先於此石望拜佛,

其石自煖, 因名煖石」

- ⑬ 필자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배례석을 지닌 사찰로서는 通度寺를 위치하여 海印寺·願堂庵·佛國寺·直指寺·華嚴寺·寶林寺·桐華寺·靑巖寺·修道庵 또는 경주 박물관·驛前 三層石塔前 등 상당수에 달하며 그의 原城의 居頓寺址의 고려시대의 寺址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金堂이나 石塔의 전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⑭ 海印寺 願堂庵의 경우 배례석은 법당을 향하여 縱으로 놓여있으나 그 크기 (길이 九三, 폭 四七, 높이 三三 cm)가 小形일 뿐 아니라 上面의 蓮華子房(全幅 二二·五 cm)이 陽刻으로 두드러져 있어 그 위에서 절하기에는 곤란하며 그의 대부분의 사찰도 마찬가지다.
- ⑮ 이 板石은 三切로써 造成되었으나 風化를 입어 현재는 五切되어 있으며 또 북쪽의 아래 부분은 缺失된 것으로 보인다.
- ⑯ 高裕燮 前掲書 P, 九九
- ⑰ 『梁山郡誌』卷之一 P, 五八(增補版).
- ⑱ 筆者가 接한 『梁山郡誌』는 一九六〇年代 刊行의 增補版이고 아직 그 初刊本은 보지 못하였다. 이의 간행은 적어도 朝鮮後期에는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⑲ 『朝鮮寺刹史料』上 P, 五三一 「通度寺創規由緒」條 「謹按古記云, 高麗國第四光宗大王, 崇信佛法, (中略) 拜禮石, 到今現存極樂殿前, 然石面刻書云, 太康王乙丑二月日造云, 則光宗即太康歟未詳」
- ⑳ 『朝鮮金石總覽』上 P, 一九二 「梁山通度寺國長生石標」, 그리고 『通度寺事蹟略錄』에 의하면 이들은 통도사를 중심으로 주위에 十一長生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 이와같은 金石文은 象川里에서도 발견되어 이는 고려시대의 광활하였던 통도사의 寺域을 표시하는 일종의 境界표로 생각되었다.
- ㉑ 『文化財大觀』寶物篇(中) P, 一九〇 慶北大 博物館 석조비로자나상 참조.
- ㉒ 高裕燮, 前掲書 참조.